

『삼국유사』 「연오랑세오녀」의 ‘도기야’*

전수연**

【국문초록】

『일본서기』 응신천황 14년~16년 조에 궁월군이 대규모의 무리를 이끌고 신라에서 일본에 도착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5세기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들 신라계 이주민들은 하타씨(秦氏)라 불리며, 지금의 교토 서쪽 우즈마사 지역에서 세력가로 성장한다.

이렇게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신라계 이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떠난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유사』에 실린 「연오랑세오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설화가 아닐까 추정해 보았다.

5세기 포항지역에는 대규모 이주민을 이끌만한 세력집단이 존재했다. 진 왕조로부터 인수를 받을 정도의 예족의 세력가가 지배하는 일정수준의 정치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포항지역 세력이 집단이주를 감행했던 배경에는 5세기의 정치사회적 불안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정복전쟁에 의하여 소국들이 독자적 정체성을 잃어가자 포항지역에서도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세기 아달라왕의 시대는 박씨에서 석씨로 왕권이 넘어간 시대이고, 5세기 내물왕의 시대는 석씨에서 김씨로 왕권이 넘어간 시대이므로, 두 시대는 왕권을 장악한 성씨가 바뀌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본이주의 시기로 설정된 ‘아달라왕 때’의 함의는 정치사회적인 불안이다. 이 불안감이 「연오랑세오녀」에서 일식이라는 하늘의 변고로 상징화되었다.

이주민을 이끌었던 궁월군은 ‘융통왕’이라 일컬어졌다. 포항지역은 ‘도기야’ 즉 ‘도기왕의 들’이라 불렸다. 사마천의 『사기』 「흉노열전」에 의하면, ‘도기왕’은 ‘현명

* 이 논문은 2015년 안동대학교 기본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안동대 한문학과

차례

1. 머리말
2. 「연오랑세오녀」의 이야기 구조
3. 5세기 포항지역의 정치 사회적 상황
4. ‘도기야’의 뜻
5. 세오녀의 비단
6. 맺는말

1. 머리말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린 「연오랑세오녀(延烏郎細烏女)」 설화에 처음 관심을 보인 것은 1929년 김창균이다.¹⁾ 이후 많은 학자들의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논문만도 50여 편에 이른다.²⁾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인 까닭에 국내 학자들뿐 아니라 일본 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과 일본 학자들의 연구는, ‘영일현(迎日縣)’이나 ‘일월(日月)’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해맞이’ 또는 ‘해돋이’나 ‘해와 달’에 관심을 기울여, 태양신화나 일월제외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 신화를 비교하거나 천문현상을 살피고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명 등 이동경로에 연구를 집중하기도 하였다. 이문기 「2~3세기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정세와 교류에서 본 연오랑 세오녀」³⁾는, 종래 연구와 문제의식을 조금 달리하여 연오설화의 역

1) 김창균(1929), 「연오랑세오녀 전설의 유래」, 『신흥』 창간호.

2) 2011년까지의 연구목록은, 신상구(2012), 「〈延烏郎 細烏女〉 神話의 研究史 考察」에, 기고문, 단행본, 논문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 2009년에 설립된 연오랑세오녀 연구소는 2010년부터 “연오랑세오녀”를 주제로 해마다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2년 연오랑세오녀연구소와 포항문화원이 주관한 제3회 한일 국제세미나의 자료집에 신상구의 발표문이 수록되어 있다. 2011년 이후의 연구목록은 참고문헌으로 대신한다.

사적 배경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필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기존 연구가 주로 ‘영일현’과 ‘해와 달’에 방점이 찍혔다면, 필자는 ‘도기야’와 ‘비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본서기(日本書紀)』 응신천황 14년~16년 조에 궁월군(弓月君)이 대규모의 무리를 이끌고 신라에서 일본에 도착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5세기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들 신라계 이주민들은 하타씨(秦氏)라 불리며, 지금의 교토 서쪽 우즈마사 지역(광릉사 일대)에서 세력가로 성장한다.⁴⁾ 신라계 이주민의 위세는 하타씨의 후손인 진하승(秦河勝) 부부의 목조상이 광릉사의 목조반가사유상 바로 옆에 안치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하승의 후손 가운데 비단직조업으로 성공한 진주공(秦酒公)은 우즈마사씨[大秦氏]라는 성을 하사받기도 한다.

이렇게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신라계 이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떠나 온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⁵⁾ 『삼국유사』에

-
- 3) 이문기(2013), 『2~3세기 한반도(韓半島)와 일본열도(日本列島)의 정세(情勢)와 교류(交流)에서 본 연오랑(延烏郎) 세오녀(細烏女)』, 『동방한문학』 57, 동방한문학회.
- 4) 일본에서 발간된 『교토대사전』(淡交社, 1983) ‘하타씨’ 항목에, “도래계 고대씨족 중 최대의 씨족. 우즈마사 부근을 본거지로 했다. 조선반도의 동쪽 신라에서 5세기 후반 경에 집단으로 건너와 일본의 국가형성에 문화, 기술 등을 통하여 공헌했다.”라고 하였다.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3(창비, 2014), 60~61면에서 재인용. 유홍준은 61~62면에서 『일본서기』의 궁월군 일본이주 기사에 대하여 “나당연합군에게 패배한 후 통일신라에 적대적인 감정을 품었고, 그로 인해…… 신라와의 좋았던 인연들은 백제로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 때문에 『일본서기』에는 궁월군을 백제출신인데 우여곡절 끝에 가야를 통해 건너왔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신라땅에서 왔다는 팩트만 취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5) 『일본서기』 궁월군 관계기사에 대하여, 연민수 외 옮김(2014), 『역주 일본서기1』, 동북아역사재단, 536면 주석 90)에서 “신라방면(울진)에서 건너간 집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였다. 울진이 출발지점임을 증명하려면, 포항지역에서 전승되는 『연오랑세오녀』와 같은 일본이주 설화가 울진지역에서도 전승됨을 제시하여야 할 것 같다.

실린 「연오랑세오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설화가 아닐까 추정해 보고자 한다. 「연오랑세오녀」설화의 배경지역인 「도기야(都祈野)」를 「도기왕의 영역」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융통왕(融通王)」이라고도 했다는 「궁월군」의 의미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융통왕」을 「원융하게 통달한 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현왕(賢王)」을 뜻하는 「도기왕」과 의미와 상통한다. 하타씨들이 비단직조업으로 성공하고 이후 일본의 비단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 신라계 이주민들은 고도의 비단직조기술을 보유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신라에서 일어난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변고를 해결하는 데 매개체로 작용한 것은 바로 일본으로 건너간 세오녀가 짜서 보낸 고운비단이었다.

먼저 5세기 포항지역에 대규모 집단이 이끌고 일본으로 이주할 만한 세력가가 존재했는지의 여부, 그들 집단의 성격을 살펴본다. 둘째, 대규모 이주를 감행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5세기 포항지역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살펴본다. 셋째, 이주집단을 거느렸던 궁월군의 의미와 포항의 지명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넷째, 궁월군의 무리가 왕과 왕비에 비견할 만한 세력을 누렸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다섯째, 궁월군의 무리가 고도의 비단직조기술을 소유하였는지,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다. 연오랑과 세오녀의 일본이주와 하늘의 변고인 일식현상, 도기야의 의미,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설정, 세오녀가 짜서 보낸 비단의 함의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

2. 「연오랑세오녀」의 이야기 구조

「연오랑세오녀」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 A- ① 제8대 아달라왕이 즉위한 지 4년 정유에
- ②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연오랑이 바다에 나가 바닷말을 따는데 갑자기 바윗돌이 나타나 연오랑을 태우고 일본으로 갔다.
 - ③ 일본 사람들이 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여겨서 올려 세워 왕으로 삼았다.
 - ④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나가서 찾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 역시 바위에 올라갔더니 바윗돌은 또한 앞서처럼 그를 태우고 갔다.
 - ⑤ 그 나라 사람들이 놀랍고도 이상하여 왕께 아뢰어 바쳤더니 부부가 서로 만나 그녀를 귀비(貴妃)로 삼았다.
 - ⑥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자, 천문을 맡은 관리가 아뢰기를, 신라에 내려와 있던 해와 달의 정기가 지금은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괴변이 생겼다고 하였다.
 - ⑦ 왕이 사신을 보내어 두 사람을 찾았다. 연오가 말하기를, 자신이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것이니, 지금 어찌 돌아가겠느냐고 하며, 자신의 왕비가 짝 고운 생초비단을 가지고 돌아가 그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것이라 일러주었다. 사신이 돌아와 연유를 아뢰었고,
 - ⑧ 그의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 ⑨ 이후에는 해와 달이 이전과 같이 빛을 찾았다.
 - ⑩ 고운 생초비단을 임금의 창고에 간직하여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貴妃庫)'라 하였다.
 - ⑪ 하늘에 제사지낸 곳을 '영일현(迎日縣)'이라 한다.
- B- ⑫ 또 '도기야(都祈野)'라고도 한다.

「연오랑세오녀」를 지명유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역이 '영일현(迎日縣)'이라고 불리게 된 유래(A)와 '도기야(都祈野)'라는 지명을 갖고 있다는

서술(B)의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설화는 시간적 배경을 달리하는 여러 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달라왕대에 이주사건의 배경지역이 ‘도기야(근오기현)로 불리웠고, 해와 달의 변고가 있었다(일식).

둘째, 일본열도로 이주한 집단이 한 지역의 세력가가 된 사건이 있었고, 그들의 일본이주가 신라사회에 타격을 주었으며(해와 달의 변고라는 은유적 표현), 일본에 이주한 집단이 보낸 매개물에 의하여 신라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제천의식을 거행하여 해와 달이 빛을 되찾았다는 은유적 표현).

셋째, 이주민 집단이 떠난 뒤 ‘도기야(훌륭한 지도자의 영역)’의 의미가 묻히고 해와 달을 숭배하던 그들의 풍습도 약화되었으며, 해맞이 의식만이 남아 고려조 이후에는 ‘영일현(해돋이 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다.

3. 5세기 포항지역의 정치 사회적 상황

『일본서기』 응신천황 14년 조에, 궁월군(弓月君)[일명 융통왕(融通王)]이 120현(縣)의 인민들을 이끌고 귀화하려고 한다⁶⁾는 기사가 나온다. 응신천황 16년 조에는 일본에 도착했다는 기사가 이어진다.⁷⁾ 5세기⁸⁾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대규모 집단이주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설화의 배경이 되는 포항지역에 큰 무리의 백성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세력

6) 『역주 일본서기1』, 536면.

7) 앞 글, 541면.

8) 앞 글, 해제, 87면. 일본의 국학자 본거선장(本居宣長)은 『고사기전(古事記傳)』(1789)에서 『일본서기』의 기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밝혔다. 그는 특히 『동국통감(東國通鑑)』과 비교하여 신공기(神功紀)와 응신기(應神紀)의 기년이 2주갑(120년) 소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536면 주석94. 응신기 기년을 백제왕력을 토대로 수정하면, 백제왕이 아직기를 파견한 응신천황 15년은 백제 아신왕14년(404)이라고 하였다.

집단이 존재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포항지역에서 출토된 ‘晉率善穢伯長’이라는 동인(銅印)[구리인장]은 이 지역에 강력한 세력가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동인은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경북 포항시 신평면 흥곡리(구 마조리)에서 청색의 유리옥 10여점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 동인은 중국의 진(晉) 왕조(265~316)가 주변 이민족의 군장에게 내려준 인수(印綬) 중의 하나로서, 포항의 정치세력이 예족(濊族)의 한 지파(支派)였음을 알려준다. 이 인장이 포항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은, 이곳에 진 왕조로부터 인수를 받을 정도의 세력가가 있었고, 그가 지배하는 일정수준의 정치적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의미가 되며⁹⁾, 그 정치세력은 예족의 한 지파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신라사회를 떠나야했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5세기에 진한(辰韓) 소국들의 입지가 약해져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BC 108년에 고조선이 한무제에게 멸망당하고 한사군을 설치하자 많은 고조선 유민들이 군현지배에 반발하여 남쪽으로 이주해왔다.¹⁰⁾ 고조선의 유민들은 산과 계곡에 나뉘어 살다가 육촌(六村)으로 구성된¹¹⁾ 사로국이 형성되었다는 신라 건국기사가 시사하듯이, 선진적인 문화와 정치사회를 경험한 고조선 유민을 비롯한 북으로부터의 이주세력이 중심이 되어 각지에서 새로운 소국을 형성하였다¹²⁾. 크고 작은 지역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 ‘국(國)’이라 불리는 정치조직은 3개의 연맹체로 느슨하게 결집하여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의 삼한(三韓)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삼한사회는 『삼국지』 「동이전」에 의하면¹³⁾, 마한이 54개국, 진한이 12개국, 변한이 12개국 등 각

9) 이문기(2013), 145~146면.

10) 앞 글, 140~141면.

1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혁거세거서간.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 爲六村.”

12) 이문기(2013), 141면.

각 자립성을 가진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내부에서는 소국 사이에 세력차가 생겨나 유력한 소국이 주변의 약소국들을 정복, 병합해 나가기도 했다¹⁴⁾. 『삼국사기』에 의하면¹⁵⁾, 사로국은 파사이사금대부터 주변소국에 대한 정복에 나서 동왕 23년(102)에는 안강의 음즙벌국, 삼척의 실직국, 경산의 압독국을 병합하였다. 소국의 국읍인 흥해에 인접한 안강까지 사로국의 세력권에 편입되면서 포항지역 소국도 점차 신라의 영향력 속으로 편입되어 갔다. 소국의 국읍이었던 흥해읍 지역의 옥성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고고자료에 의하면, 4세기 후반 혹은 5세기에 이르면 경주의 특징적인 묘제인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이 옥성리에 축조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본격적인 지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¹⁶⁾ 신라의 정복전쟁에 의하여 진한의 소국들이 하나의 지방행정단위에 편입되면서 독자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5세기에 강력한 김씨왕권이 확립되어 소국들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면서 불안감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5세기의 신라는 17대 내물왕(356~401)~21대 소지왕(479~499) 대에 해당한다. 17대 내물왕은 석씨인 16대 흘해왕을 밀어내고 왕권을 차지함으로써 신라 마지막 임금인 56대 경순왕에 이르기까지 김씨왕권의 시대를 연 인물이다. 즉 5세기는 강력한 김씨왕권이 등장하면서 진한의 소국들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던 시기인 것이다.

「연오랑세오녀」에서 ‘아달라왕 때’와 일본이주 사건은 어떤 관계를 맺는

13) 『삼국지』 권30, 「위지(魏志)」 「동이전」. “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 馬韓在西 … 散在山海間 無城郭 有爰襄國 牟水國 … 凡五十餘國 … 弁辰韓合二十四.”

14) 이문기(2013), 138~139면.

15)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二十三年, 秋八月 …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悉直·押督二國王來降.”

16) 이문기(2013), 144~145면.

가? ‘아달라왕 때’는 박씨인 아달라왕을 마지막으로 정권이 석씨인 9대 벌휴 왕으로 넘어가던 시기이다. 4대 석씨 탈해왕, 13대 김씨 미추왕, 53~55대 박씨 신덕왕, 경명왕, 경애왕은 왕권교체를 이루지 못했다. 2세기 8대 아달라왕의 시대는 박씨에서 석씨로 왕권이 넘어간 시대이고, 5세기 17대 내물왕의 시대는 석씨에서 김씨로 왕권이 넘어간 시대이므로, 두 시대는 왕권을 장악한 성씨가 바뀌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왕권교체가 이루어지던 불안한 시기인 것이다. 일식이라는 천문현상도 시대가 불안했기에 변고로 인식되었다. 혁거세왕때 7번의 일식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천변天變 즉 하늘의 변고로 인식하지 않았다.¹⁷⁾ 아달라왕 13년(166)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는데¹⁸⁾, 정치적으로 불안감을 느꼈기에 당시 사람들이 일식을 변고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아달라왕 때’의 함의는 정치사회적인 불안이다. 일식을 변고로 인식할 만큼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했던 시기를 의미한다. 정복전쟁에 의하여 신라의 지배가 본격화되고 강력한 김씨왕권이 확립되어, 주변 소국의 입지가 약화되고 불안감이 고조되었던 5세기 포항지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아달라왕 때’가 불안한 시기라는 함의를 지닌다면, 집단적 일본이주는 김씨가 왕권을 장악해가던 5세기에 일어난 사건일 수 있다.

『연오랑세오녀』는 연오랑과 세오녀의 일본이주 시기를 2세기 아달라왕 4년(157)으로 설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아달라왕 때’로 설정했다고 하여 일본이주 사건이 꼭 2세기에 일어났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아달라왕 때’라는 시간설정은 불안한 시기라는 함의와 함께, 포항지역이 ‘도기야라 불렀던 아득한 옛날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다.

17) 앞 글, 164~165면. 혁거세왕 4년부터 3세기 후반까지 일식이 일어난 것을 표로 작성했는데, 18회의 일식이 있었다.

18)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아달라이사금 13년조 “春正月辛丑朔 日有食之”

4. ‘도기야’의 뜻

4.1. ‘도기야’와 ‘근오기현’

‘도기야’의 뜻은 무엇일까? 포항지역이 ‘도기야’로 지칭된 것은 언제부터 일까? ‘도기야’는 포항지역의 다른 이름인 ‘근오기현’이나 ‘영일현’과 같은 의미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영일현」의 「건치연혁」에 의하면 이 지역의 명칭은 다음과 같은 변천과정을 겪는다.

본래 신라의 근오기현(斤烏支縣)으로 일명 오랑우현(烏良友縣)이라고
도 했다. 경덕왕 때 임정현(臨汀縣)이라 개칭하여 의창군(義昌郡)의 속현
으로 하였고, 고려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

本斤烏支縣. 景德王改名臨汀, 爲義昌郡領縣, 高麗改今名 … 19)

윗글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 때 행정구역의 이름을 일제히 고쳐 ‘임정현(臨汀縣)’이라 부르기 이전,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은 ‘근오기현(斤烏支縣)’이었다. 임정현은 단지 ‘바닷가 마을’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고려이후에야 ‘해돋이 마을’ 또는 ‘해맞이 마을’이라는 의미의 ‘영일현(迎日縣)’으로 불리게 된다. ‘바닷가 마을’이라는 ‘임정현’과 ‘해돋이(해맞이) 마을’이라는 ‘영일현’은 의미상으로 연결점이 없다. ‘영일현’은 고려 이후의 명칭이고 ‘근오기현’이 역사가 가장 오랜 이름이니, ‘아달라왕 때’로 설정된 『연오랑세오녀』의 내용은 ‘영일현’이라 불린 시기보다 한참 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일본이주 사건을 ‘영일현’의 ‘해돋이’나 ‘해맞이’라는 의미와 관련시켜 고찰해야 할 필연성이 적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오랑세오녀』의 일본이주 사건을 ‘근오기현’과 관련시켜 살피는 것이 ‘영일현’과 관련시켜 살피는

19)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영일현(迎日縣)」의 「건치연혁」.

것보다 타당성이 있다.

포항지역의 옛날 이름이 ‘근오기현’이었다고 밝힌 것은 조선시대의 『동국여지승람』이 처음은 아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임정현은 본래 근오기현이었는데, 지금의 영일현이다.

臨汀縣 本斤烏支縣, 今迎日縣.²⁰⁾

라 하였고, 고려의 문인 정몽주는 「정습명진」에서 정습명의 관향인 영일현을 소개하면서

영일현은 본래 신라의 근오기현이고, 지금 경상도에 속한다.

迎日縣 縣本新羅斤烏支, 今屬慶尙道.²¹⁾

라 하였다.

이 지역의 행정구역 이름 중 가장 오래된 ‘근오기현’과 일본이주 설화의 배경으로 적시된 ‘도기야’는 의미상으로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 「연오랑세오녀」설화의 배경이 되는 ‘도기야’의 흔적은 현재의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남아 있다.²²⁾ ‘영일만’에 자취를 남긴 후대의 이름인 ‘영일현’보다, 이 지역에서는 ‘도기야’라는 명칭이 뿌리가 깊은 것이다. ‘도기’라는 이름이 아직도 ‘포항시 도구리’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연오랑세오녀」에

20) 『三國史記』 권34, 「地理1」.

21) 『圃隱集』, 「鄭襲明傳」.

22) 강인구의 3인 역주(2003), 『譯註 三國遺事』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희문화사, 263면, 주석10) 都祈野: 지금의 迎日郡 東海面 都邱洞. 근처 烏川面 日月洞에 貴妃庫址인 日月池가 있다; 고운기(2011), 『삼국유사 길 위에서 만나다』, 현암사, 221면. “그 제사를 지낸 곳이 도기야(都祈野), 지금의 포항과 영일 사이 바닷가이다.” 232면. “포항에서 오아사로 들어오는 길에 있는 도구 해수욕장은 아마도 도기야(都祈野)에서 연유한 이름임에 틀림없다.”

나오는 ‘도기야’라는 이름의 연원이 포항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도기야’와 ‘근오기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도기(都祈)’와 ‘근오기(斤烏支)’의 뜻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주동은 『고가연구』에서 『삼국유사』에 실린 「모죽지랑가」를 풀이하면서, ‘斤烏支’와 ‘都祈’가 같은 뜻의 지명이라고 하였다.

「迎日」의 原名은「돌이」(히도디)인데 이를 「斤烏支」라 寫함은「斧, 斤」의 訓 「도치」(도끼)에 依함이오, 「都祈」는 바로「도디, 도치」의 音轉 「도기, 도기」.²³⁾

「斤烏支」라 표기한 것은 「斤」의 訓인 「도치」(도끼)에 의지한 것이고, 「都祈」의 음인 「도기」는 「도디, 도치」의 음이 변한 것이라 하였다. 김현룡도 양주동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도기야’는 향찰식 표기임이 틀림없으니… ‘돌이’를 ‘都祈’로 표기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이곳의 신라 시대 이름을 ‘斤烏支縣’이라 하였다. ‘斤’은 ‘도끼 근’자로 이것과 ‘烏’를 붙이면 ‘도’가 되고 앞에서 ‘都’로 나타낸 것과 일치한다²⁴⁾.

‘도기’의 한자식 표기가 ‘都祈’이고 향찰식 표기가 ‘斤烏支’이므로 ‘都祈’와 ‘斤烏支’는 일치한다고 하였다. ‘都祈’의 都는 ‘斤烏支’의 斤烏에 대응하고, ‘都祈’의 祈는 ‘斤烏支’의 支에 대응한다. 즉 도=都=斤烏, 기=祈=支의 대응으로 보고자 한다. ‘斤烏支’의 ‘斤烏’를 ‘도’라 읽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斤’을 우리말 뜻인 ‘도끼’로 풀이하는 것은 양주동과 의견이 같다.

23) 양주동(1954), 『古歌研究』, 박문출판사, 159면.

24) 김현룡(1984), 『韓國古說話論 - 『三國遺事』 說話를 중심으로』, 새문사, 282면.

그러나 양주동은 ‘斤鳥支’ 전체를 현대말 ‘도끼’의 고어인 ‘도취’ 또는 ‘돛귀’라 하고 ‘도디’(해돋이)의 음이 轉換된 것으로 보았으나,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한자 ‘斤’의 훈인 ‘도끼’로 ‘도’라는 음 즉 ‘都’를 표기하고, ‘斤’이 ‘도’라는 음임을 분명히 하려고 ‘鳥’를 붙였다. ‘鳥’를 ‘도’의 末音인 ‘ㄱ’ 소리를 나타내려고 添記한 글자로 본다.

양주동은 같은 책에서「모죽지랑가」의 구절인 “逢鳥支”를 ‘마주보기’라고 풀었다. 즉 ‘逢’을 ‘맞보’로, 음차(音借)인 ‘鳥’는 “‘맞보’(逢)의 末音 ‘ㄱ’를 添記한 것”이라 하였다. 이어서 말음첨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逢鳥」(맞보)와 같이 用言의 末音을 音借字로 다시 添記함은 名詞의 義字下 末音添記와 共히 詞腦歌中에 가장 慣用된 記寫法이다.²⁵⁾

뜻을 나타내는 명사 아래에 末音을 添記하는 것은, 사뉘가에서 가장 관용적인 표기법이라 하였다. 최남희도 「모죽지랑가」를 분석하면서, 양주동과 같은 의견을 내었다.

「逢」을 훈독자 「맞보-」의 줄기로 읽고, 이 「맞보-」를 「맞-」와 「보-」의 합성어로 생각한 것이다. 「鳥」는 음차자 「오」로 끝소리 덧적음이다. 「逢」을 「맞보-」로 읽는 이유는 중세어 용례에 기인한다.²⁶⁾

‘斤鳥’에서 ‘鳥’는 ‘斤’의 음 ‘도’의 말음인 ‘오’를 표기하기 위한 말음첨기의 음차이고, 이러한 용법은 가장 관습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斤鳥’를 ‘도’라 읽을 수 있고, 도= 都= 斤鳥의 등식관계가 성립한다.

25) 양주동(1954), 151면.

26) 최남희(1997), 「고대국어 표기 자료「支」의 소릿값」, 『한말연구』 3, 한말연구학회, 152면.

‘支’를 ‘祈’와 같은 음의 음차로 보아 ‘기’라고 읽을 수 있는가? 오늘날 ‘支’는 지탱하다는 뜻의 ‘지’라 읽는다. 양주동은 “逢烏支”를 ‘마주보기’라 풀이하여 ‘支’를 ‘기’라 읽었다. ‘支’의 고대음에 대하여, 최남희는 “신라향가에 쓰인「支」자의 소릿값”을 추정하면서 세 가지 음가를 제시하였다.

신라향가에 쓰인 「支」의 소릿값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남방방언 기층의 한자음은 「ki」로 생각되고, 이 「ki」의 「k」이 「h」로 바뀌어 「hi」로 정착된 것이 당시의 가장 보편적인 소릿값으로 추정된다. …… 중고음 기층의 한자음은 「ci」로 정착되어 향가 표기자에 쓰인「支」의 소릿값은 「ki, hi, ci」의 세 가지로 추정된다. 고대국어 표기에 쓰인 한자음에 대하여 ‘一字一音主義’를 고집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현대의 한국한자음에도 한글자에 대하여 둘 또는 세 가지 음이 쓰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²⁷⁾

신라 향가에 쓰인 ‘支’의 한자음이 ‘기’, ‘히’, ‘치’의 세 가지로 읽혔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기’라 읽힌 용례의 하나로 『모죽지랑가』의 “逢烏支”를 들면서, ‘支’가 한자음 ‘기’를 표기하는 음차자임을 밝혔다.

「支」는 음차자 「기」로 이름법의 씨끝이며 부림말로 쓰였다. 「hi」로 본다면 어찌씨로 읽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부림말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맞다.²⁸⁾

이상에서 살펴듯이 기= 祈= 支의 등식관계가 성립한다. ‘都祈’는 한자음을 빌려 ‘도기’를 표기하였다. ‘斤烏支’의 ‘斤烏’는 ‘斤’의 뜻인 ‘도끼’에서 ‘도’의 음을 가져오고 끝음표시인 ‘오’를 함하여 ‘도’라 발음하고 ‘支’는 ‘기’

27) 앞 글, 151~152면.

28) 앞 글, 152면.

음을 표기하여 결과적으로 ‘도기’를 나타낸다. 도기=‘都祈’=‘斤烏支’의 관계가 성립하며, ‘都祈’와 ‘斤烏支’가 ‘도기’라는 같은 음을 표기하였다는 양주동과 최남희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都祈’가 ‘돋이(해돋이)’의 뜻을 지닌다고 본 양주동, 최남희, 김현룡, 등과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都祈’의 뜻을 추정해봄으로써, ‘都祈野’와 ‘斤烏支縣’은 같은 의미의 행정단위이지만, ‘迎日縣’이 지닌 ‘해돋이(해맞이) 마을’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4.2. ‘도기야’의 뜻

「연오랑세오녀」B-⑫에 나오는 ‘도기야’라는 명칭은 이 지역과 인연이 깊다. ‘도기’라는 흔적은 현재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남아있다. 이것은 1995년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되면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 이전에는 ‘영일군 동해면 도구동’이라 불렸으며 ‘상도구’와 ‘하도구’라는 마을이름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도기’라는 이름은 지역민의 의식 주변에 끈질기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도기야(都祈野)’의 ‘도기(都祈)’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도기’는 ‘賢’을 뜻하며, ‘도기야’는 ‘현명한 지도자의 들’, ‘훌륭한 지도자의 영역’이라고 해석된다. ‘도기(都祈)’와 같은 의미로 추정되는 ‘도기(屠耆)’라는 용어가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 「흉노열전」이다.

흉노에서는 賢을 일러 屠耆라 한다. 匈奴謂賢曰屠耆²⁹⁾

‘도기(都祈)’와 ‘도기(屠耆)’는 한자를 빌려 음차(音借)하는 과정에서 표기가 달라졌을 뿐이다. 즉 같은 뜻의 말을 다른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29) 사마천, 『사기』 「흉노열전」.

고 여긴다. 예컨대, 고대국가인 부여를 중국의 사서에서는 夫餘 또는 扶餘라 표기하였는데³⁰⁾, 특히 『삼국지』 「위지」의 경우 같은 사서에서 夫餘와 扶餘 두 가지 한자를 사용하고 있어 발음을 표기하는 한자의 선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도기’라는 말을 기록하는데 ‘都祈’와 ‘屠耆’의 표기가 모두 가능한 것이다. 흉노에서는 ‘賢’을 ‘도기(屠耆)’라 이른다고 하였으니, ‘도기(屠耆)’라는 말은 ‘賢’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도기(屠耆)’라는 말에는 ‘현명한’ 또는 ‘훌륭한’이라는 뜻이 담겨있음을 알겠다. 흉노의 관제(官制)에 ‘도기왕(屠耆王)’이 나온다.

좌현왕, 우현왕, 좌곡려왕, 우곡려왕, 좌대장, 우대장, 좌대도위, 우대도위, 좌당호, 우당호, 좌골도후, 우골도후를 두고 있다. 흉노는 현자를 일러 ‘도기’라 한다. 그러므로 항상 태자를 ‘좌도기왕’으로 삼는다.

置左右賢王, 左右谷蠡王, 左右大將, 左右大都尉, 左右大當戶, 左右骨都侯. 匈奴謂賢曰屠耆, 故常以太子爲左屠耆王.³¹⁾

흉노의 관제를 보면, 좌현왕, 우현왕 이하 여러 관직을 두고 있다. 좌를 우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가장 높은 좌현왕(左賢王)은 ‘좌도기왕 左屠耆王’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항상 선우의 태자를 좌도기왕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반고의 『전한서』 「흉노전」에 나오는 ‘도기(屠耆)’의 용례 가운데 우현왕(右賢王)인 도기당(屠耆堂)을 선우로 추대하는 기사가 나온다.

30) 夫餘: 『사기』 권129, 「화식열전」/ 『전한서』 권28하, 「지리지」/ 『후한서』 권1하, 「광무제기」/ 『삼국지』 「위지」 권30, 「동이전」.

扶餘: 『삼국지』 「위지」 권2, 「문제기」/ 『晉書』 권108, 「제기」, 「모용외」/ 『위서』 권5, 「제기」, 「고종기」.

31) 사마천, 『사기』 「흉노열전」.

전거연지가 그의 아우인 좌대저거인 도룡기와 모의하여 우현왕인 도기당을 악연구제선우로 삼았다. 악연구제선우란 자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현왕이 되었는데, 오유선우의 이손이다. 악연제선우가 즉위하자 다시 (한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顯渠閼氏與其弟左大且渠都隆奇謀 立右賢王屠耆堂爲握衍胸鞞單于 握衍胸鞞單于者代父爲右賢王 烏維單于耳孫也 握衍胸鞞單于立 復修和親³²⁾.

흉노에서는 태자를 ‘좌도기왕’으로 삼을 뿐 아니라, ‘도기’라 불리는 우현왕도 흉노의 최고 권력자인 선우가 되었다. 따라서 ‘도기’라는 명칭을 갖는 사람은 예비선우 즉 최고 권력의 다음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기(屠耆)’라는 칭호는 흉노의 후예로 여겨지는 돌궐족도 사용하였다.

돌궐은 그 조상이 서해의 서쪽에 살았는데 독자적인 부락을 이루었고, 대체로 흉노의 다른 갈래였다. … 황제가 기뻐하며 시를 지어 말했다. “낙새에는 짐의 깃발이 서 있고, 용정에 청록색의 짐의 수레가 돌고 있도다. … 호한야선우가 와서 머리를 조아리자 도기왕들도 뒤따라오는구나. 변발한 사람들이 펠트와 양고기를 받들고, 가죽 깃지를 끼고 술잔을 바치는구나. 어찌 한나라 천자만이 일 없이 선우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突厥者 其先居西海之右 獨爲部落 蓋匈奴之別種也. …… 帝大悅賦詩曰 鹿塞鴻旗駐 龍庭翠輦回 氈帳望風舉 穹廬向日開 呼韓頓顙至 屠耆接踵來 索辮擊氈肉 韋韜獻酒盃 何如漢天子 空上單于臺.³³⁾

『북사(北史)』 『돌궐전(突厥傳)』에 실려있는 위의 기록을 보면, 수나라 양제 대업 3년(607)에 황제가 금하의 북쪽에 있던 계인가한의 거쳐까지 행

32) 반고, 『전한서』 『흉노전』.

33) 『북사』 『돌궐전』.

차하였다. 수나라에 투항하여 황제의 비호를 받던 계인가한은 황제에게 축수의 술잔을 올렸다. 황제가 기뻐하며 시를 지었는데, 한나라 황제에게 투항했던 흉노의 선우인 호한야선우와 그가 데리고 온 ‘도기왕’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수나라 양제에게 투항한 계인가한과 그 무리들을 한나라 시대 흉노의 호한야선우의 고사에 비긴 것이다. 같은 시가 『수서(隋書)』 「북적전(北狄傳)」³⁴⁾에도 실려 있다. 이렇게 북방유목민족에게 ‘도기왕’은 ‘현왕(賢王)’ 즉 ‘현명한 지도자’, ‘훌륭한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중국 역사가들은 우리 민족을 포함한 중국주변의 여러 민족을 몽땅그려 그들과 구별되는 종족으로 취급하였으며, 야만의 영역에 두었다. 이러한 의식은 진수가 저술한 『삼국지』 「위지」에서 엿볼 수 있다.

황제의 휘는 비이고 자는 자환이며 무제의 태자이다. … 태조가 돌아가 시자 제위를 이었다. … 기묘년 이전에 장군인 하후돈을 대장군으로 삼았다. 예맥과 부여의 선우, 언기왕, 우전왕이 모두 자기 사신을 보내어 선물을 바쳤다.

皇帝諱丕 字子桓 武帝太子也. … 太祖崩 嗣位. … 己卯以前 將軍夏侯惇爲大將軍 濊貊 扶餘 單于 焉耆 于闐 王 皆各遣使奉獻³⁵⁾.

위문제 연강 원년(220) 조에 중국의 주변민족이 사신을 파견하여 물품을 바친 사실을 기록하였다. 언기왕, 우전왕과 구별하여 예맥과 부여의 지배자는 예맥 부여선우라고 일컫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내의 역사가들은 우리 민족이 문명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중국주변의 여러 민족이 야만에 속하는 것과는 변별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가들의 시각은 국내

34) 『수서』 「북적전」.

35) 진수, 『삼국지』 「위지」.

의 역사가들과 이렇게 달라서, 중국 역사가의 저술에서 예맥과 부여의 최고 지도자를 선우로 기술했다. 이것은 최고 지도자를 황제라 일컫는 자신들과, 선우를 최고 지도자의 칭호로 삼았던 흉노를 포함한 주변 민족을 구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인들에게 예맥과 부여는, 중국주변의 이민족일 뿐이고 자신들과는 다른 민족이라 여겼기에, 예맥과 부여의 최고 지도자를 선우라 일컬었다.

중국의 역사가들이 이렇게 인식한 것은, 예맥과 부여가 그들 주변의 종족들과 풍습과 언어가 서로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등룡은 “비록 韓이니 돌궐이니 하는 서로 다른 종족 명칭으로 각기 분리되어 사서에 나타나지만, 그들의 선조는 분명히 역사시대 이전에 同一故土에서 共通祖語를 사용하던 동일문화권의 구성원이었다는 가설을 확립시켜”³⁶⁾ 준다고 하였다. 韓, 흉노, 돌궐, 말갈의 선조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 공통의 언어를 사용한 동일문화권의 구성원이었을 것이라는 이등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흉노말과 예맥 부여말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더라도 거주지역의 근접성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다.

『사기』 「흉노열전」에 선우의 처를 일컫는 ‘闕氏’라는 단어가 나온다.

동호는 … 이에 목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선우의 한 闕氏를 얻고 싶다고

36) 이등룡(1990), 「고대 한국어와 돌궐어의 관계」, 『대동문화연구』 24, 291면. “돌궐과 돌궐의 전대인 흉노가 스키타이 문화권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은 스키타이문화권의 주축을 이루었던 Sogdia 및 Persia인과 문화 및 언어의 교류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지만 한민족의 선조가 스키타이문화권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추정은 고고학에서나 가능한 견해였지 언어사의 입장에서는 아직 거론될 바가 없다.”, 300면 “말갈에 관한 언어자료가. … 한결같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돌궐어와 연결된다는 사실은 비록 韓이니 돌궐이니 하는 서로 다른 종족 명칭으로 각기 분리되어 사서에 나타나지만, 그들의 선조는 분명히 역사시대 이전에 同一故土에서 共通祖語를 사용하던 동일문화권의 구성원이었다는 가설을 확립시켜 줌과 아울러”

이르도록 하였다.

東胡 … 乃使使謂冒頓, 欲得單于一闕氏.³⁷⁾

리지린은 『고조선연구』에서, 흉노의 ‘알씨(閼氏)’란 단어는 동호(東胡)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추단하였다. 흉노에서는 선우(單于)의 처를 ‘알씨’라 하였는데, ‘알씨’란 말은 선우제도가 생긴 뒤인 두만선우(頭曼單于) 시대에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만선우 이전에는 아직 ‘국왕’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왕후도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알씨’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 조선어의 ‘아씨’는 ‘閼氏’와 관계가 있는 단어이고, ‘아가씨’는 ‘아씨’가 변화된 단어이며, 고대조선어에서도 처를 ‘아씨’라 칭했으리라고 추정하였다.³⁸⁾ 전국시대 ‘동호’를 흉노동방의 제종족의 범칭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맥(貊)’은 ‘동호’ 중 가장 강대한 종족임이 명백하다.³⁹⁾ 통구스계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족 가운데 맥을 제외하고 동호에 포괄된 다른 종족이 당시에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씨’는 맥의 언어였다고 해석하였다.⁴⁰⁾ 통구스어 계통이 아닌 돌궐어, 선비어, 몽고어에서는, 선우의 처를 ‘가돈(可敦)’, ‘각존(恪尊)’, ‘하툰(哈敦)’이라 하여 왕후를 가리키는 단어가 서로 상통한다고 하였다.⁴¹⁾ ‘알씨’라고 선우의 처

37) 『사기』 「흉노열전」.

38) 리지린(1989), 『고조선연구』, 열사람, 186면.

39) 앞 글, 184면.

40) 앞 글, 186면.

41) 앞 글, 185면. 《위서, 토곡혼전》(吐谷渾傳)에는 《始自號爲可汗, … 號其妻爲恪尊》이라고 쓰여있는 바 토곡혼(吐谷渾)은 왕후를 《각존》(恪尊)으로 칭하였다. 동 렬전에 《吐谷渾本遼東鮮卑, 徒河涉歸子也》라 하였으니, 《恪尊》은 선비어이다. 동서 권50 《吐谷渾傳》에도 《可汗 … 其妻爲恪尊》이라고 썼다. 《당서》 215권 상 《돌궐전》(突厥傳)에는 《號可汗, 猶單于也, 妻曰可敦》이라고 썼다. 돌궐(突厥)족은 왕후를 《가돈》(可敦)이라고 칭했다. 몽고어로 황후, 공주, 귀부인을 《하툰》(哈敦)이라고 칭한다.

를 지칭하였던 맥족의 언어와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흉노의 ‘알씨(閼氏)’란 단어가 부여와 고구려의 근간을 이루는 맥족의 언어에서 전래되었다면, 흉노의 ‘도기왕(屠耆王)’이란 단어도 흉노 고유어가 아니라 맥족의 언어에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조선의 근간을 이루는 예족과 부여와 고구려의 근간을 이루는 맥족은 원래 한 개의 족속의 두 갈래였다. 예족과 맥족은 오늘의 요서 요동지역에서 남북으로 접촉하고 있었으므로, 언어 범속이 대체로 동일하였다.⁴²⁾

포항지역에서 출토된 ‘晋率善穢伯長’이라는 동인(銅印)이 가리키듯이 포항의 정치세력은 예족의 지파(支派)였다. 따라서 『연오랑세오녀』의 ‘도기야’는 흉노의 말이 아닌 예족의 언어일 가능성이 있다. 포항지역의 가장 오래된 행정구역 이름은 이두식표기인 ‘근오기현’과 한자식 표기인 ‘도기야’이다. ‘도기’는 포항지역 소국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도기왕’이라는 뜻을 지니고, ‘도기야’를 ‘현명한 왕의 들’, ‘훌륭한 지도자의 영역’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5. 세오녀의 비단

5.1. 삼한과 비단

청동기시대 이후 북방의 송화강이나 압록강 유역에는 예맥족(濊貊族)이라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예맥족은 부여 건국 이전에 그 수장이 이미 예왕(濊王)으로 불릴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기원전 2세기 동명 집단과 합쳐 부여를 구성하게 되었다.⁴³⁾ 부여는 위만조선 대부터 세력을

42) 앞 글, 182면.

43) 송호정(2015), 『부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조선

형성하고 고조선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체제를 마련하여,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기원후 494년 고구려에 항복할 때까지 700여 년을 존속하였다⁴⁴⁾.

동아시아에서 경금(經錦)의 가장 이른 유품은 중국 요녕성 조양(朝陽)에서 출토되었으며, 유사한 금(錦) 잔편이 산둥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당시 고조선에 포괄된 영역이었다.⁴⁵⁾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조⁴⁶⁾에 의하면 부여인들은 외국에 나갈 때 수(繡), 증(繒), 금(錦) 등의 화려한 견직물을 착용하였다는데⁴⁷⁾, 실지로 중국 길림성 모아산 부여인들의 생활유적에서 평견직물과 함께 금직물이 출토되어 문헌의 기록을 실증하고 있다⁴⁸⁾. 비단직조는 북쪽의 고조선이나 부여뿐이 아니고 남쪽의 삼한지역에서도 누에치기와 함께 이루어졌다.

馬韓 在西 其民土著種植 知蠶桑 作緜布 (『삼국지, 위지, 동이전』 마한 조)
 弁辰 …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진 조)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마한에서는 뽕잎을 먹여 누에치기하여 면포(緜布)를 지었다. 진한에서는 뽕잎을 먹여 누에치기하여 곁포(縑布)를 지었다. 예족으로 구성된 고조선이나 맥족으로 구성된 부여뿐 아니라, 예족으로 구성된 삼한지역도 발달된 비단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진한에서는 광폭세포(廣幅細布)를 생산하였다.⁴⁹⁾ 폭이 넓은 고운

단군 부여』, 172~173면.

44) 앞 글, 169면.

45) 심연옥(2002),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209면.

46) 『삼국지』 「위지」, 「동이전」 “夫餘 … 衣尙白 白布大袂袍袴 履革鞮 出國則尙[〰]繒[〰]繡[〰]錦[〰]罽[〰].”

47) 심연옥(2002), 16면.

48) 앞 글.

49) 『삼국지』 「위지」, 「동이전」 “弁辰 … 十二國亦有王 其人形皆大衣服 絮淸長髮 亦作

비단을 만들었음은 보통 베틀보다 진보된 구조의 베틀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산된 비단도 결이 고왔다는 것이다. 진수는 ‘廣幅細布’라고 명기하여 진한의 비단기술이 진(晉)나라보다 우월함을 말하였다.⁵⁰⁾ 진보된 베틀을 제작하고 높은 품질의 비단을 생산했다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치조직을 이루고 있었음을 뜻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5세기 포항지역에는 진나라에서 인수(印綬)를 받을 만한 세력가가 있었다.

5.2. 신라계 이주민의 누에송배

신라계 이주민을 지칭하는 秦氏를 왜 하타씨라고 불렀는가? 한반도에 서 집단적으로 이주한 이들은 본래 제각기 성이 달랐을 것인데 일본 열도에 와서는 각자의 성씨를 버리고 똑같이 하나의 성으로 새 출발을 했다. 고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성씨를 만들 때면 씨족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중국의 옛 나라 이름을 취하곤 했다. 그래서 아스카의 백제계는 한씨(漢氏)[아야씨], 오사카의 고구려계는 오씨(吳氏)[구례씨]라고 했듯이, 교토의 신라계는 진씨(秦氏)[하타씨]라는 성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⁵¹⁾.

하타라고 부르게 된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다. 『신찬성씨록』에서는 이들이 “누에를 키우고, 비단을 직조하여 천황에게 바치니 천황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살(肌膚, はだ, 하다)과 같다며 이에 성을 하타(波多)라고 내려주었다(溫煖如肌膚. 仍賜姓波多)”고 했다. 여기에서 하타라는 발음이 유래됐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또 기직(機織)의 일본 발음인 ‘하타오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⁵²⁾ 신라계의 진씨(秦氏)가 하타씨

廣幅細布.

50) 리지린(1989), 285면.

51) 유홍준(2014), 62~63면.

로 불리게 된 유래에서 공통점은 누에, 비단직조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진(秦)이라는 한자를 일본에서 하타라고 발음하는 것은 하타씨 경우 외엔 없다고 한다. 이렇게 비단은 신라계 이주집단인 하타씨와 이주 초기부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하타씨인 진하승의 위상은, 우즈마사신명이라고 칭하며 신으로 숭배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하타씨의 신사인 광릉사의 우즈마사전[太秦殿]에는 진하승을 본존으로 모시고 비단의 여신인 백제계의 한직녀(漢織女)와 고구려계의 오직녀(吳織女)를 합사하였다.⁵³⁾ 광릉사 지역에 있는 대벽신사(大關神社; 오사케 신사)에는 궁월군과 진주공이 대벽신으로 모셔졌다. 대벽신으로 모신 분은 진시황, 궁월군, 진주공인데, 진시황을 모신 것은 하타씨의 시조를 진시황이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궁월군은 하타씨의 시조로, 진주공은 우즈마사씨의 시조로 모셨다고 한다. 광릉사 본전에는 목조미륵반가상 바로 옆자리를 하타씨의 후손인 진하승 부부의 목각상이 차지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그 절에 주석했던 스님의 초상조각을 모시는 것과 비교가 된다.⁵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신라계 집단이 비록 왕은 아닐지라도 한 지역의 권력자, 지배자로 활약하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연오랑 세오녀 부부가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설화에는, 우즈마사 지역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광릉사 본전에 미륵반가상과 함께 안치되었던 진하승 부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신라계 이주민인 ‘하타씨’는 고도의 비단직조기술을 바탕으로 우즈마사 지역의 세력가로 성장하였다. 『일본서기』 옹랴 천황 15년 조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52) 앞 글, 63면.

53) 앞 글, 57~60면.

54) 앞 글, 67면.

친황은 진주공을 총애했다. 詔를 내려 秦民을 모아서 진주공에게 주었다. 그래서 공은 180종류[種]의 勝[하급관리]을 거느리고 庸과 調로 비단[絹織]을 바쳐 조정에 가득 쌓아두었다. 그래서 姓을 내려 우두마좌(馬頭麻佐, 우즈마사)라고 하였다.⁵⁵⁾

진주공이 ‘우두마좌’라는 성을 갖게 된 배경에는, 조정에 가득 쌓아놓을 만큼의 비단을 조세로 바친 공적이 있었다. 이 기사 끝에 “어떤 곳에서는 ‘우두모리마좌禹斗母利麻佐(우즈모리마사)’라고도 했다.”⁵⁶⁾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 ‘우즈마사’의 해석을 놓고 여러 학설이 있는데, ‘우두모리’는 우리 말 ‘우두머리’의 한자 표기로 보기도 한다. 진씨(秦氏) 중에서도 이들이 태진씨(大秦氏)라고 불리게 되었으니, 하타씨의 우두머리 집안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 지역은 진하승과 그 후예들의 본거지였기에, 지금도 지역명칭에 ‘우즈마사’라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진주공은 진씨 중에서도 우두머리 집안이라는 뜻으로 태진(大秦)이라 쓰고 우즈마사라고 불리게 되었고, 국가의 지원 아래 본격적으로 양잠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듬해인 웅략 16년조의 기사이다.

조를 내려 뽕나무가 자랄 수 있는 국현에 뽕나무를 심게 하였다. 또 秦民을 흠어져 살게 하여 조와 용을 바치게 하였다.⁵⁷⁾

신라계 이주민이 양잠과 비단직조의 기술을 가졌기에, 뽕나무를 심어 누에치기를 주관하고 비단을 조세로 바치게 한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우즈마사 지역에는 누에신사[蠶の社]가 세워진다. 누에신사는 일본 고대 신들의

55) 『역주 일본서기1』, 171면.

56) 앞 글.

57) 앞 글, 536면.

이름을 등재한 『연희식 신명장(延喜式神名帳)』에, 내력도 깊고 명예로운 신사라는 뜻의 ‘명신대사(名神大社)’ 중 하나로 나온다.⁵⁸⁾ 현재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중요한 신사로 취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누에신사를 세울 만큼 이들의 생활에서 누에, 비단직조의 비중이 컸다는 것이다. 하타씨들의 누에숭배는 예맥족을 근간으로 하는 고조선과 부여에까지 연원이 올라간다. 중국의 요녕성 양소문화 유적지에서 대리석의 누에모양 장식품이 출토되고, 산서성 양소문화 말기 유적지에서 도잠용(陶蠶蛹)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장식품들은 6~7천 년 전에 이미 누에를 숭배하였음을 보여주며⁵⁹⁾, 이 지역은 고조선이나 부여의 생활근거지와 관련되는 곳이다. 누에치기와 비단짜기 기술, 누에숭배는, 포항지역에서 세력을 누렸던 예족 일파의 뿌리인 고조선, 부여지역의 기술과 풍습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고조선과 부여에 근원을 둔 누에숭배와 그들의 양잠과 비단직조 기술이 포항지역 예족의 세력가인 도기왕에게 전승되었다. 이들이 일본으로 집단이주함으로써 궁월군의 후손인 하타씨와 우즈마사씨에 이르러 비단직조술이 고도화되고, 누에신사도 세워져 누에숭배가 계승되었다.

6. 맺는말

『일본서기』 응신천황 14년~16년 조에 궁월군이 대규모의 무리를 이끌고 신라에서 일본에 도착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5세기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들 신라계 이주민들은 하타씨[秦氏]라 불리며, 지금의 교토 서쪽 우즈마

58) 유흥준(2014), 66면.

59) 黄能馥, 陈娟娟 지음, 이희영 옮김(2016), 『중국의 비단역사 칠천년 - 역대 직조와 지수품 연구』, 한국학술정보, 24~25면.

사 지역에서 세력가로 성장한다.

이렇게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신라계 이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떠나 온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유사』에 실린 「연오랑세오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설화가 아닐까 추정해 보았다.

5세기 포항지역에는 대규모 이주민을 이끌만한 세력집단이 존재했다. 진 왕조로부터 인수를 받을 정도의 예족의 세력가가 지배하는 일정수준의 정치적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포항지역 세력이 집단이주를 감행했던 배경에는 5세기의 정치사회적 불안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정복전쟁에 의하여 소국들이 독자적 정체성을 잃어가자 포항지역에서도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세기 아달라왕의 시대는 박씨에서 석씨로 왕권이 넘어간 시대이고, 5세기 내 물왕의 시대는 석씨에서 김씨로 왕권이 넘어간 시대이므로, 두 시대는 왕권을 장악한 성씨가 바뀌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본이주의 시기로 설정된 ‘아달라왕 때’의 함의는 정치사회적인 불안이다. 이 불안감이 「연오랑세오녀」에서 일식이라는 하늘의 변고로 상징화되었다.

이주민을 이끌었던 궁월군은 ‘음통왕’이라 일컬어졌다. 포항지역은 ‘도기야’ 즉 ‘도기왕의 들’이라 불렸다. 사마천의 『사기』 「흉노열전」에 의하면, ‘도기왕’은 ‘현명한 지도자’라는 의미이다. ‘궁월군’과 ‘도기왕’의 의미는 상통한다. 포항지역의 가장 오래된 지명인 ‘근오기현’은 ‘도기야’와 같은 뜻의 말이다. ‘도기’를 이두식으로 표기한 것이 ‘斤烏支’이고,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 ‘都祈’이다. 흉노는 다른 북방유목민족과 달리 선우의 처를 ‘알씨(闕氏)’라 하였는데, 인접하였던 예맥족의 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도기왕’도 예맥족의 언어일 개연성이 있다.

포항의 예족 일파는 고도의 비단직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

국의 고조선과 부여지역의 출토유물이 비단직조기술을 실증해준다. 신라계 이주민인 ‘하타씨’는 고도의 비단직조기술을 바탕으로 우즈마사지역의 세력가로 성장하였다. 하타씨인 진하승의 위상은, 광통사 본전에 진하승 부부의 목각상이 목조미륵반가상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우즈마사 지역에는 누에신사가 있다. 예맥족을 근간으로 하는 고조선이나 부여의 생활근거지와 관련되는 곳에서 출토된 대리석의 누에모양 장식품이나 도잠용은 6~7천 년 전에 이미 누에를 숭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누에숭배와 비단직조 기술이 포항지역 예족의 세력가인 도기왕에게 전승되고, 일본으로 집단이주함으로써 궁월군의 후손인 하타씨와 우즈마사씨에 이르러 비단직조술이 고도화되고, 누에신사도 세워져 누에숭배가 계승되었다고 여긴다.

『연오랑세오녀』에서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이주하자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도기왕의 일본이주가 신라사회에 타격을 주었음을 뜻한다. 연오랑 세오녀 부부가 일본에서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우즈마사 지역에서 신으로 추앙받았던 진하승 부부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다. 세오녀의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자 재앙이 없어졌다는 설화의 내용은, 신라계 이주민의 비단직조 기술이 신라 본토보다 선진적이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세오녀 비단에는 이러한 일련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다.

기존 연구가 주로 ‘영일현’과 ‘해와 달’에 방점이 찍혔다면, 본 논문은 ‘도기야’와 ‘비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연오랑세오녀』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국어학 전공자가 아닌 까닭에 ‘도기야’와 ‘근오기현’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못하였다.

참고문헌

- 김강산,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가 일본으로 간 까닭』, 『강원민속학』 25, 강원도민속학회, 2011.
- 김경일, 『‘연오랑세오녀’ 설화와 ‘근기국’과의 관계』, 『제5회 연오랑세오녀 한일국제세미나 자료집』, 2014.
- 김정하, 『동아지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 시론』 - 한국 고대설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33, 2012.
- 노성환, 『일본 현지설화를 통해서 본 연오랑과 세오녀의 정착지』, 『일어일문학』 56, 대한일어일문학회, 2012.
- 선석열, 『신라와 왜의 교류와 연오랑 세오녀』, 『제5회 연오랑세오녀 한일국제세미나 자료집』, 2014.
- 안승범 · 최혜실,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테마파크 기획 연구: 포항 ‘연오랑 세오녀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7, 2010.
- 연민수, 『延烏郎 細烏女 전승을 통해 본 新羅와 倭』, 『제4회 연오랑세오녀 한일국제세미나 자료집』, 2013.
- 윤영란, 『연오랑세오녀,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전망과 기대효과』, 『제3회 연오랑세오녀 한일국제세미나 자료집』, 2012.
- 이문기, 『2~3세기 한반도와 왜의 교류와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역사적 배경』, 『제4회 연오랑세오녀 한일국제세미나 자료집』, 2013.
- 이봉일, 『<삼국유사(三國遺事)> ‘연오랑 세오녀(延烏郎 細烏女)’와 <고사기(古事記)> ‘신라왕자 아메노히보코(天之日矛)’ 이야기의 비교분석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9, 국제한인문학회, 2012.
- 이정옥, 『세계의 태양숭배사상』, 『제4회 연오랑세오녀 한일국제세미나 자료집』, 2013.
- 최재목, 『빛(光) · 새벽 · 동(東)의 인문적 의미』, 『제5회 연오랑세오녀 한일국제세미나 자료집』, 2014.
- 도오노마에 아키코, 『아메노 히보코와 피안(彼岸)』, 『제3회 연오랑세오녀 한일국제세미나 자료집』, 2012.

논문투고일 : 2018. 5. 26. 심사완료일 : 2018. 6. 23. 게재확정일 : 2018. 6. 26.

Abstract

“Dogiya(도기야)” in Yeonorang Seseonyeo(연오랑세오녀)
of Samgugyusa(삼국유사)

Chun, Soo-yeon*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and prove that a folk tale “*Yeonorang Seseonyeo*” included in a famous Korean history book “*Samgugyusa*” is based on a historical fact of the success story of the migrants from Korean Peninsula to Japan in 5th Century (the “Migrants”, or “Migration”).

For that purpose, the issues that will be discussed in the thesis are as below.

- (i) Whether there was a powerful figure who had power to organize and lead the Migrants from Pohang area in Korea to Kyoto area in Japan and (in case there was such an powerful fig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grants;
- (ii) The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of Pohang area which caused the Migration;
- (iii) The meaning of “*Gungweolgun*” which referred to the leader of the Migrants and the relation between “*Gungweolgun*” and name of places within Pohang area;
- (iv) Whether the Migrants had advanced level of silk weaving skills and if so what is the root of such silk weaving skills; and
- (v) Whether the Migrant enjoyed the authority similar to that of the king and queen in Japan.

First, there was an influential figure within Pohang area who had power to organize and lead the Migrants. The excavation in Pohang area, of a copper seal, manufactured Qin Dynasty (265 A.D. ~ 316 A.D.) that was awarded to the leaders of the surrounding ethnics, indicates the existence of a powerful leader at Pohang area.

Second, political and social instability and insecurity appears to be the main reason for the Migration. At that time, territorial expansion by the *Kingdom of Shilla* was causing small sized tribal countries to lose autonomy and such phenomenon must have caused fear and stress to Pohang area as well. The excavation in Pohang area, of a “wood coffin covered with pebbles mound” which holds typical characteristics

* Andong National University

of the ones at Kyungju area, indicates that Pohang area was indeed becoming a part of “*Kingdom of Shilla*”. Further the phenomenon of the solar eclipse (which was seen as the rage of the God by then) as portrayed in the story of “*Yeonorang Seseonyeo*”, indicates the fear and stress of Pohang area.

Third, “*Gungweolgun*” which referred to the leader of the Migrants is also known as “*Yungtongwang*”, meaning a leader with flexibility and expertise while the same was named “Dogiya” at Pohang area before the Migration. What is worth noting here would be that not only the word “Dogiya” was originated from one of the oldest villages at Pohang area, but could also be traced back to the language of the “Yemaek Tribe”, a tribe originally located in the North of Korean Peninsula, not the “Huns”, which indicates that Migrants are branch of “Yemaek Tribe”.

Fourth, the surname of the Migrants in Japan was written in “*Zin*” in Chinese characters and locally pronounced as “*Hata*”. Although the origin of the aforementioned surname is still under the dispute amongst Japanese scholars, they all agree that such notion is related to “silk” or “silk weaving skills”. Based on relics discovered at Liaoning Province in China (the territory governed by Gojosun Dynasty), “Yemaek Tribe” appears to have held advanced level of silk weaving skills, which must have been succeeded to the descendants at Pohang area, and then eventually to Japan through the Migrants. From this perspective, the description in the story of “*Yeonorang Seseonyeo*” that the sun and moon lost its lights, should be interpreted as depicting the history that the advanced silk weaving skills is lost in “*Kingdom of Shilla*” due to the Migration.

Lastly, the Migrants became a powerful figure in Japan based on their advanced silk weaving skills they held. “*Ilbonsagi*”, a famous Japanese history book, records a story of one of the descendants of the Migrants, “*Zin Jugong*”, who was awarded the surname of “Daezin” (locally pronounced as “*Uzumasi*”, which literally means the great Zin) for his contribution of large amount of tax. Also the leader of the Migrants or the descendants thereof are worshipped as the God at shrines, located at Kyoto area in Japan. From this perspective, the description in the story of “*Yeonorang Seseonyeo*” that husband and wife became the king and queen respectively, should be understood as indicating a great success for the Migrants.

key words Dogiya(都祈野), Gungweolgun(弓月君), Yemaek Tribe(濊貊族), Hata(秦氏), silk, Silkworm Shrine.